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4년 9월

선교편지 제 179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지난 8월 18일,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창립 4주년 기념 예배'를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4년 전 건축 당시부터 최근까지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건축이 중단되어 건축 작업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홍수'로 인근 강이 범람하여 건축 중이던 교회 바닥이 물에 잠기고, 거의 완성 단계에 '지진'이 닥쳐서 교회 지붕이 훼손되는 등, 예상치 못한 난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4년 동안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구성원은 기존의 디고스 예일교회와 사뭇 다릅니다. 종종으로 고생하며 거동이 불편한 여러 교우들이 매주 예배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풍으로 인하여 혼자 걷기가 불편한 교우들이 있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다른 이의 도움이 없으면 이동이 어려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여 항상 부축이 필요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예배에 참석케 하기 위해, 교회는 매주 예배 시간에 맞추어 '트라이시클'을 그들의 집으로 보내어 예배의 출석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아팔라야 예일교회에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마 9:12)**

또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예배 보다는 예배 후에 나누는 친교 음식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교우도 있습니다. 손에는 성경책이 아닌, 각종 크고 작은 물병과 비닐 백을 들고 옵니다. 언제 씻었는지 모를 정도로 온 몸은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 거의 한 시간 전에 가장 먼저 교회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예배 순서와 전혀 상관없이 친교를 나눌 때까지 잠을 잡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배가 끝나고 친교를 나눌 때면, 가장 먼저 음식이 있는 식탁에 가서 가지고 온 비닐 봉지와 물병에 친교 음식과 음료수를 가득 담고는 유유히 교회를 떠납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하고 고민하기 까지 했으나,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혹시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걱정이 되는 그런 친근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아팔라야 지역은 이곳 디고스 내에서 가장 빈부 차이가 심합니다. 바닷가 근처에 좋은 집을 짓고 잘 사는 주민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금 시대에 아직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나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역에 4년 전에 아팔라야 예일교회를 세워 주시고, 잃어버린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아팔라야 지역 구석 구석에 복음이 전해 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 9:13)**





✝ 드디어 고지가 가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진행한 '마띠 은혜교회'의 건축이 마침내 완공을 약 2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뒷 마당에 물탱크 설치, 공구를 보관할 작은 창고, 화단 및 텃밭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열 명이 넘는 작업자들이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외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구석 구석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당연히 교회의 완공도 큰 의미가 있지만,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기적 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건축 중에 안전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 건축을 이야기 할 때마다 안전 사고가 오점처럼 회자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까 하는 '염려'로 참으로 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다가, 건축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면 또 다시 모든 '염려와 걱정'을 갖고 와서 전전긍긍 했던 시간이 정말 길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두 주 후면, 이 모든 부담에서 자유 할 수 있게 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날아 갈 것 같습니다.

###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벧전 5:7)



그런데 마띠 은혜교회 건축 이후 새로운 교회 공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이곳에서 발생한 진도 6 이상의 '지진'으로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가 많이 손상되어 이에 대한 복구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진으로 인해서 벽이 갈라진 것은 물론이고, 교회 지붕과 천장이 심하게 훼손 되어 보기에다 안타까울 지경이고, 부분적으로 전기 공사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붕 업체를 불러서 손상이 심한 부분을 일부 수리 했지만, 워낙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공사인 까닭에, 근본적인 수리를 하지 못하고 항상 큰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 주셔서, 이제 마띠 은혜교회 건축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지진 보수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갈라진 벽을 보수하는 공사도 있지만, 대부분 심하게 훼손된 지붕과 천장을 보수하는 공사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안전 장치를 귀찮아 하는 작업자들의 아슬아슬한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마띠 은혜교회, 디고스 예일교회,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어, 이 성전들을 통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창 11:5)



###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교회 / 아팔라야 예일교회 /  
마띠 은혜교회 / 마띠 소망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교회 건축과 보수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3.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하여
5.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214-17 45 th Drive, Bayside, NY 11361

